

현장시선



문윤택
제주국제대학교 이사장·언론학박사

제주에서 문샷씽킹(Moonshot thinking)

1960년대 전 세계 과학계는 하늘의 달을 잘 보기 위해 망원경의 성능을 더 발전시키는데 집중하고 있었다. 이때 존 F. 케네디가 "고성능의 망원경을 고집할게 우리 아니라 인간이 직접 달나라에 가보면 되지 않겠는가?"라며 10년 안에 사람이 달에 가겠다고 선언한 달 탐사 선언이 '문샷씽킹 Moonshot thinking'이다.

럼 기존에 존재하는 것을 약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혁신으로 대전환을 준비하는 것이 'Moonshot thinking'의 방식이다. 눈이 핑핑 돌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이다. 여기에 맞추어 빠르게 흐름에 올라타야한다. 이 사고방식은 실패와 난관을 극복할 수 없는 장애로 보지 않고, 풀 수 있는 수수께끼로 바라보는 것이다. 실패를 승리로,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려는 혁신적 새로움을 만들어내려는 시도가야 한다. 확실한 답을 따라가려는 것은 안전한 방법만을 사용하고, 쉬운 해결책만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 위험을 지는 대신 현재 상태에 머무르려 한다. 늘 똑같은 도구와 시각의 틀을 가지고 다른 결과를 기대 하는 것이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보는 건 미친 짓이

다'라고 아인슈타인은 일갈했다. 언제나 획기적인 돌파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해답의 불확실성을 감수할 때, 위험을 감수할 때이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담대한 상상력으로 시도해야 대전환 담론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다. 이제는 먹고사는 문제부터,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먹거리 산업까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Moonshot thinking'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틀에 대한 재정립의 시도인 것이다. 파괴적 혁신을 이루려면 기존 시각의 틀로 현상을 바라보선 안된다. 더 늦기 전에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창의적이고 대담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전의 제주 정책들은 달을 좀 더 잘 보기 위해 망원경의 성능을 높이는 식의 접근이었다면, 이제는 달에 직접 갈 수 있는 탐사선을 제

작하겠다는 'Moonshot thinking'의 혁신적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이것은 단기적인 결과에 집착해서는 이룰 수 없다. 결과를 즉각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위험을 감수하고, 엄청난 끈기와 의지를 포함해야 한다. 제주를 아직 공존체 문화가 많이 남아있고 인구수도 적당해서 뭐든지 시도해 볼만하다.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경제성과 생태성의 평형 관계를 바탕으로,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제주에서의 'Moonshot thinking'!! 새로운 혁신의 혜택은 모든 제주도민들에게, 특히 사회적으로 어려운 약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시기이다. 결국은 사람을 위한 담대한 상상이 답이다.

사설

장기침체·소비부진에 활력 잃은 제주경제

제주경제가 무더운 한여름을 무색케할 정도로 공포 얼어붙은 형국이다. 장기침체로 도민은 물론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도 지갑을 잘 열지 않으면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코로나 19 장기화에도 근근이 버텨왔던 도내 소상공업체들이 아예 문을 닫거나 줄줄이 도산하는 사태를 맞고 있어 큰일이다. 제주도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8월 제주 주요 소비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이뤄진 도내 전체 카드이용금액은 16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812억원)와 지난해 같은 기간인 6월(1849억원)에 비해 각각 8.3%, 10.1% 줄었다. 1인당 하루 평균 카드이용금액도 7만6900원으로 전월(7만8900원)보다 2.5%, 전년 동기(8만120원) 대비 4.0% 감소했

다. 또 6월 국내 관광객 1인당 카드이용금액은 4만8600원으로 전년 동기(5만2500원)보다 각각 7.5%, 18.0% 쪼그라들었다. 1인당 하루 평균 카드이용금액도 전월보다 1.0%, 전년 동기보다 8.5% 가량 줄었다. 제주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침체에다 고물가·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어서다. 이런 여파로 도내 소상공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화된 것이다. 최근 4년간 폐업한 업체수만 봐도 어떤 지경인지 그대로 보여준다. 2020년 618곳에 그쳤던 폐업 업체가 2021년 723곳, 2022년 965곳, 2023년 1706곳으로 눈에 띄게 늘어났다. 지역경제의 싹쓸이 같은 역할을 하는 소상공업체들이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책이 절실한 이유다.

파리올림픽 개막, 제주스포츠도 변화를...

지구촌 스포츠 축제인 2024 파리 하계올림픽이 27일 오전 2시 30분(한국시간) 파리 센강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수상 행진으로 17일간 열전의 막을 올린다. 엘리트 스포츠의 최대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은 이번 올림픽에 21개 종목, 143명의 선수를 파견했다. 1976년 몬트리올 이후 48년 만에 최소 인원이다. 사격의 오예진 등 제주 출신 및 제주 연고 선수 7명과 지도자 1명도 참가하고 있다. '소수정예'라고 자위하고 있지만 올림픽 출전자격을 갖추지 못하면서 가장 작은 규모가 된 것이다. 축구, 농구, 배구 등 구기종목을 중심으로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아시아의 맹주라 불리던 시절은 옛 이야기가 됐다. 대한민국 엘리트 스포츠가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은 기존 스포츠 육성 시스템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서 비롯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선수층은 얇아지고, 가치관의 다양화 등으로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있는 것도 영향이 있다. 따라서 이번 올림픽 성적 여부를 떠나 대회가 끝난 뒤 스포츠 정책에 일대 대전환이 예상된다. 일찌감치 진단 후 처방전까지 나온 상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스포츠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대한민국 엘리트 스포츠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도민들의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 엘리트 중심이 아닌 자율형 선수 육성 시스템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꾀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인프라 확충은 선결과제다. 스포츠는 경쟁이고, 성적 향상은 당연지사다. 제주 스포츠 대변혁은 파리 올림픽 개막과 함께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픽 뉴스

'24 세법개정안 상속·증여세율 조정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현행 vs 조정
과세표준 세율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한라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욱 편집국장 고대로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열린마당

마을 숲 보호 위한 노랑알락하늘소 방제 대책



양윤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지난 7월 5일, 제주도 일원에서 노랑알락하늘소의 우화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수목류의 피해를 예방하고 방제하기 위한 노력이 관계 기관별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노랑알락하늘소는 인도, 태국, 대만 등에 서식하는 아열대성 곤충으로, 나무를 갉아 알을 낳고 그 알이 월동 후에 우화하는 방식으로 번식한다. 이러한 번식 방식은 다양한 나무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소나무재선충병처럼 다른 병을 옮기는 매개충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보면, 주기적인 병해충 예찰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병해충 발견 후 신속하게 생태계 위협 정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방제법을 찾아, 선단지를 비롯해 전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방제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현재 노랑알락하늘소의 서식 확인과 피해 수목에 대한 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방제용 농약의 직권등록 절차도 마무리되어 현장 방제를 준비하고 있다. 신속한 방제로 나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예찰과 생활사 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노랑알락하늘소의 주요 서식지가 마을 주변이나 도로변의 나무들인 경우가 많아,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마을 숲 보호를 위해 주민들과 관계 기관이 협력해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방제 활동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개장신고서 무료 작성 대행
장례지도사 강봉호
010-5254-6661
「사)한국예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장 의사
616-08-85402

서귀포시정소식
제3회 성산 조개바탕축제 개최 알림
○ 축제기간 : 2024. 8. 3(토) ~ 8. 4(일)
※개막식: 8. 3(토) 19:30 / 드론쇼 20:00~(15분간)
○ 축제장소 : 성산읍 내수면 모래갯벌 일원(고성리 263번지 일대)
○ 축제내용
- 체험프로그램: 조개잡기, 고양뉘시, 조개바탕길 걷기 등
- 무대프로그램: 개막식, 동아리경연, 초대가수 축하무대 등
- 특별이벤트: 드론라이트쇼
○ 축제문의: 서귀포시 성산읍 ☎ 064-760-4282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온가족 숲캉스' 참가자 모집
○ 접수기간 : 2024. 7. 25(목) ~ 7. 31(수)
○ 운영일 : 2024. 8월 1일, 3일, 10일, 15일, 17일, 22일, 24일
○ 참여대상 : 도내 초등학교 1~3학년 20가족
○ 운영내용 : 환영 박 터뜨리기, 나뭇잎 관찰과 퍼즐 맞추기, 동물흔적 찾기, 해먹 쉼터 등
○ 신청방법 : 이메일(moonsilver@naver.com) 접수
○ 문의사항 : 서귀포시 붉은오름자연휴양림 ☎ 064-760-3774
2024년 제주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 신청기간 : ~ 2024. 8. 6(화)
○ 대상자 : 만 40세 이상의 전문경력력과 사업화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예비 또는 3년 이내 초기창업자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최소 6개월~(최대 1년 연장 가능)
○ 입주장소 : 서귀포시 중정로 86, 2~3층
○ 지원내용 : 창업공간 무료 지원,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스타트업메이 홈페이지)
○ 문의처 : 서귀포시 스타트업메이 ☎ 070-7732-0202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술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 발효기(곰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 펠렛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 010-3119-3820, 010-2696-9876